

전후 오키나와 소설에 나타난 젠더 표상의 반전(反轉)

-일본 본토 복귀 이후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손지연*

(e-mail: kibonoson@hanmail.net)

目次

1. 서론
 2. '반전'하는 젠더 표상: 복귀 이후, 미군-미국인 남성 이미지의 변화
 3. '점령'의 재편: 본토 남성의 '나쁜 남자' 이미지
 4. 결론
-

1. 서론

1972년 5월 15일, 오키나와는 본토로 '복귀(復歸)'되었다. 일본(본토)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환(返還)'한 것이 된다.¹⁾ 베트남전쟁(1955~1975)의 주요 병참기지였던 오키나와를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으로 '복귀-반환'하게 된 것은 오키나와를 포함하여 미국과 일본 양국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베트남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폐해진 경제와 반전(反戰)운동 등으로 정점에 이른 사회적 불안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으며, 극동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객원교수

- 1) '복귀'는 주로 오키나와 민중의 입장에서 오키나와의 지위 변화를 바라본 것이며, '반환'은 주로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다. 따라서 '복귀'는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 '조국복귀' '평화헌법 아래로의 복귀' '반전복귀'와 같은 문맥으로 사용되는 반면, 공식적인 문서나 외교 관계의 맥락에서는 '반환'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아라사키 모리테루/정영신·미야우치 아키오, 옮김(2008) 『오키나와 현대사』, 논형, p.63).

전략에 있어서도 전략상 일본(자위대)의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 파트너를 이뤄 베트남전쟁 특수에 힘입은 고도경제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극동에서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에 꼭 필요했던 오키나와 기지를 존속시킬 수 있게 되었고, 일본은 미일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이다.²⁾

한편 오키나와의 경우는 오랜 염원이었던 미 점령체제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여전히 일본 내 미군기지의 75퍼센트가 오키나와 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라크 전쟁이든 북한 핵실험이든 미군이 긴장하면 언제든 다시 전시 하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북귀 이전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점은 없다고 하겠다. 즉 ‘핵 없이, 본토 수준으로(核抜き・本土並み)’ ‘반전북귀’를 주장해온 오키나와인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 글에서 다루게 될 소설들은 모두 미 점령기를 거쳐 일본 본토로 북귀한 이후의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중반에 간행된 것으로, 본토 북귀 이후의 굴절된 오키나와의 사회상을 배경으로 한다. 나카하라 신(中原晋)의 『은색 오토바이(銀のオートバイ)』(『琉球新報』, 1977), 시모카와 히로시(下川博)의 『로스엔젤레스에서 온 사랑의 편지(ロスからの愛の手紙)』(『琉球新報』, 1978), 히가 슈키(比嘉秀喜)의 『데부의 봉고를 타고(デブのボンゴに揺られて)』(『琉球新報』, 1980), 기사바 나오코(喜舎場直子)의 『여자능직공의 노래(女綾織唄)』(『新沖繩文学』, 1985) 등이 그것이다.

전후 오키나와 문학은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나 상당한 깊이로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그다지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 전후 미군정기라든가 미군기지가 집중되어 있는 오키나와의 현 상황을 포스트콜로니얼 관점에서 비판하거나 오키나와 아이덴티티 문제에 천착한 사회학, 여성학 분야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³⁾, 문학연구 영역은 그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⁴⁾ 이런 상황에서 오키나

2) 최근 아베(安倍晋三) 총리 및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의 망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역사인식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 또한 한층 증폭되는 양상으로 치달아 가고 있지만, 상당수의 일본인들은 전후에 성립된 ‘평화헌법’을 지지할 것이다. 헌법에 명기된 평화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평화교육이 조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999년, 일본정부는 거꾸로 ‘히노마루(日の丸)’와 ‘기미가요(君が代)’를 국기(國旗)·국가(國歌)로 범제화함으로써 군국주의와 침략전쟁의 상징을 부활시켰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에 미국의 지휘 아래 ‘신(新)가이드라인법’을 통과시켜 주변국으로 하여금 일본의 반(反)평화, 우경화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3) 이지원(2008) 「오키나와의 아이덴티티와 자문화인식」, 『사회와 역사』 78집, 한국사회사학회, 임성모(2006) 「잠재주권과 “재일(在日)”의 딜레마 -점령 초기 오키나와의 지위와 정체성」, 『한일민족문제연구』 10호, 한일민족문제학회, 문소정(2006) 「동아시아 맥락에서 본 오키나와 여성평화운동」, 『사회와 역사』 71집, 한국사회사학회 등이 있다. 단행본으로는, 정근식·전경수·이지원 편저(2008) 『기지의 섬, 오키나와』·『경계의 섬, 오키나와』, 논형 등이 주목할 만하다.

4) 주로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오시로 다쓰히로(大城立裕) 관련 논의가 주를 이룬다. 대표

토 게이토쿠(岡本恵徳)를 비롯한 오키나와 출신 연구자들이 꾸준히 쌓아온 연구성과는 오키나와 문학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⁵⁾ 또한 시, 평론, 증언, 기록, 소설에 이르기까지 오키나와 서사 전반을 수록한 『오키나와문학전집』(沖繩文學全集編集委員會 刊行)은 오키나와 문학의 저력을 실감케 한다. 최근 들어 한국 내에서도 메도루마 순(目取真俊) 작품이 번역되거나 다양한 텍스트론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다.⁶⁾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직 소개되지 않은 가능한 많은 텍스트를 다룸으로써 오키나와 문학 텍스트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다. 나아가 이들 텍스트에 젠더 프리즘을 덧대어 차별과 배제를 전제로 한 국민국가의 폭력에 노출되었던 동아시아 국가의 ‘공통의 경험’과 그 사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미세한 ‘경험의 차이’를 드러내 보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복귀 이후 등장한 소설 속 젠더 표상에 어떠한 변화가 감지되는지, 그리고 그것은 미국(미군)과 일본 본토, 그리고 오키나와 사이에 어떠한 정치적 함수가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2. ‘반전’하는 젠더 표상: 복귀 이후, 미군-미국인 남성 이미지의 변화

우선 미 점령기를 거쳐 일본 본토로의 복귀를 앞둔 전환기 오키나와의 시대

적인 글로는, 조정민(2010) 「오키나와가 기억하는 전후」, 『일어일문학』 45호, 대한일어일문학회, 박정미(2009) 「오시로 다쓰히로 『카테일파티』에 나타난 전후 ‘오키나와’의 위상」, 『일어일문학』 44호, 대한일어일문학회, 홍진희(2006) 「오에 겐자부로의 오키나와 이해 - 『오키나와 노트(沖繩ノート)』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59집, 한국일어일문학회 등이 있다.

- 5) 岡本恵徳·高橋敏夫(2003) 『沖繩文學選』, 勉誠出版, 岡本恵徳(1996) 『現代文學にみる沖繩の自畫像』, 高文研. 仲程昌徳(1981) 『近代沖繩文學の展開』, 三一書房.
- 6) 이에 관한 연구로는, 줄고(2013) 「변경의 기억들: 오키나와인들에게 ‘8·15’란 무엇인가?」, 『日本研究』 33집, 중앙대일본연구소, 줄고(2013) 「오키나와와 일본, 두 개의 패전 공간 - ‘선협적 체험’과 ‘상상된 8·15’」, 『日本語文學』 62집, 일본어문학회, 줄고(2013) 「유동하는 현대 오키나와 사회와 여성의 ‘내면’ - 오키나와 및 본토 출신 여성작가의 대비를 통하여」, 『비교문학』 61집, 한국비교문학회, 백지운(2013) 「폭력의 연쇄, 연대의 고리 - 오키나와 문학의 발견」, 『역사비평』 103호, 역사문제연구소, 줄고(2009) 「류큐·오키나와(인)의 아이덴티티 형성사」, 『日本學研究』 33집, 단국대일본연구소, 김응교(2008) 「폭력의 기억, 오키나와 문학 - 오에 겐자부로, 하이타니켄지로, 메도루마 순의 경우」, 『외국문학연구』 32호,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マイク・モラスキー·鈴木直子譯(2006) 『占領の記憶 記憶の占領』, 靑土社. 그리고 소설 번역서로는 메도루마 순 지음·유은경 옮김(2012) 『물방울』, 문학동네, 메도루마 순 지음·유은경 옮김(2008) 『브라질 할아버지의 술』, 아시아 등이 있다.

상과 젠더의 관련성을 간략하게 언급해 두기로 하자. 전후 오키나와 문단을 대표하는 두 명의 작가 오시로 다쓰히로(大城立裕)와 히가시 미네오(東峰夫)의 작품에 한정해 보면, 오시로의 경우, 여성의 신체(성, 정조)의 훼손을 점령이라는 현실과 연결시켜 미군(미국)의 폭력적 점령 시스템을 비판하는 한편, 오키나와인 역시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자기성찰적 문제제기도 빼놓지 않는다. 히가시 미네오의 경우, 남성성이 발현되기 이전의, 아직 성에 눈뜨지 못한 ‘소년’의 시선을 통해 성산업으로 얼룩진 오키나와 사회의 암부가 미군(미국)의 파행적 점령정책에서 기인한 것임을 폭로한다.

이 두 작가에게 있어 젠더 프레임은 미 점령 말기, 전환기 오키나와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는 데에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들 작가의 작품성향을 거칠게 요약하면, 오키나와 여성은 대개 강간의 피해를 입은 딸이나 아내, 미군을 상대로 성을 파는 창부로 묘사되며 미군에게 성적으로 억압당할 수밖에 없는 열등한 위치에 자리한다. 그리고 오키나와 남성은 무력한 아버지나 남편 혹은 성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⁷⁾

그런데 일본으로 복귀 이후 1970년대 후반이 되면 미군과 오키나와 여성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다. 오키나와 여성은 더 이상 무력한 오키나와 남성의 딸이나 아내, 즉 미군에 의한 강간의 피해자이거나 미군에게 몸을 파는 창부이거나 미군의 현지처로 살다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다. 미군과 대등한 연인관계이거나 부부관계로 발전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때로는 양다리를 걸치며 애인인 미국인 병사를 배신하고 차버리기도 한다.

이때 미군 혹은 미국인 남성은 크게 변화된 이미지를 보인다. 오키나와 여성에게 전폭적인 애정과 믿음을 주는 존재로 묘사되거나, 이제까지의 폭력적이고 강인한 모습의 미군과 달리 눈물을 보이거나 심약하기까지 하여 오키나와 여성에게 위로 받는 캐릭터로 등장하기도 한다. 모두 기존의 미군, 미국인 남성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테부의 봉고를 타고』, 『은색 오토바이』, 『로스엔젤레스에서 온 사랑의 편지』에 등장하는 미군, 미국인 남성을 통해 그 모습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테부의 봉고를 타고』⁸⁾의 주인공 프레디 다운젠트(フレディ・タウンゼント)는 베트남전쟁 시 오키나와로 파병된 미군으로, 현지 여성 교코(恭子)와 결혼, 아

7) 이에 관해서는 졸고(2013) 「젠더 프레임을 통해 본 미 점령기 오키나와 소설」(『語文論集』 55호, 중앙어문학회)에서 논의한 바 있다.

8) ‘테부의 봉고’라는 타이틀은 주인공 프레디가 본국으로 귀국하는 친구에게 혈값에 물려 받은 미국산 봉고차에 붙여진 애칭이다. ‘테부’라는 말은 비만을 속칭하는 말로, 프레디의 비만한 체형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이의 출산과 함께 이곳에 귀화하여 정착했다. 지금은 퇴역하여 구(旧) 고자(コザ)시 변두리에서 클리닝 회사(コザ・ラッグ・クリーニングカンパニー)를 경영하며 생활하고 있다. 프레디는 오키나와 청년 겐지(健二)의 시선을 통해 묘사되고 있다. 겐지는 사립대 영문과를 졸업했지만 취업률이 저조한 탓에 아직 정식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지금은 프레디의 클리닝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일하고 있다. 복귀 이후에도 오키나와의 경제가 썩 좋지 못하다는 것은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지 못한 겐지나, 1년 후면 클리닝 회사를 접어야 하는 프레디의 사정에서 엿볼 수 있다. 복귀 이전에는 미군을 상대로 장사가 제법 되었으나 이들 대부분이 본국으로 철수하는 바람에 지금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미국인 병사 프레디의 성향 및 인물 됴됨이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 출신인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안정된 수입이 보장된 군에 입대한다. 음악에 조예가 깊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프레디 또한 피아노 연주자로 성장하여, 군에 입대하자 바로 기지 내에 밴드를 결성한다. 베트남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아 가면서 “새벽녘까지 난동을 부리거나 인종을 둘러싼 폭동과 살인이 빈발”⁹⁾하고, “각성제”(p.243)가 필수품이 될 정도로 병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지자, 군 당국도 규율을 더욱 엄하게 하는 한편, 기지 내에 다양한 오락시설을 갖추어 병사들의 심신의 위무에 주의를 기울였다. 프레디가 결성한 밴드는 그러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나이트클럽의 전속밴드로 배치되었다. 아내 교코와 만난 것도 바로 이 기지 내 나이트클럽에서였다. 당시 교코는 프레디의 친구 더글러스와 “아베크(연인)”(p.243)이었지만, 더글러스가 미국으로 귀국하게 되면서 둘은 연인관계로 발전,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더글러스가 미국으로 귀국하는 날, 함께 배웅을 나갔다. 더글러스는 눈이 별경계 충혈 되도록 울었다. 그녀는 감싸 안 듯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마지막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프레디 다운젠트와 교코는 그날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졌다.(p.243)

그는 고향에 돌아가 아버지 뒤를 이어 가족과 어울려 살고 싶었다. 그런데 그는 뜻하지 않은 벽에 부딪혔다. 교코가 오키나와를 떠나지 않겠다고 버틴 것이다. (...중략...) 무서울 정도로 의지가 강한 여자였다. 그러던 중 아이가 태어났다. 그녀는 사생아로 출생신고를 했다. 아키코(明子)라는 이름도 지었다. 그것은 죽어도 미국에 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프레

9) 沖繩文学全集編集委員会(1990) 『沖繩文学全集 第8卷』, 国書刊行会, p.243.(이하, 페이지 수만 본문 안에 표기함)

디 다운젠트는 결국 두 손 들고 일본으로 귀화하기로 결심했다.(p.243)

위의 두 인용문에 보이는 오키나와 여성의 이미지는 기존의 ‘오키나와 여성 =수동적·소극적 VS 미국인(미군) 남성=주체적·능동적’이라는 젠더구도를 전복시킨다. 눈물을 보이거나 강한 의지에 눌러 두 손을 들고 마는 것은 미국인 남성 쪽이고, 그런 미국인(남성)을 위로하고 강한 의지로 굴복시키는 것은 오키나와 여성이다. 더글러스의 입장에서 보면 오키나와 여성에게 채인 셈이 되고, 프레디의 경우는 교코로 인해 오키나와로 귀화까지 감행하였으니 고국=미국마저 포기한 것이 된다. 이러한 젠더구도만으로 볼 때, 복귀 이후의 오키나와(인)과 미국(인)의 위상에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코는 같은 오키나와인 남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월등히 우월하다. 오키나와 청년 겐지의 면접을 보는 것도 교코의 몫이다. 담배를 빼어 물고 이력서를 훑어보며 “남편과 함께 배달을 돌면 되겠어. 영어 공부도 될 테고…….”(p.239)라며 면접을 막힘없이 진행해 가는 교코의 모습에 강한 카리스마가 엿보인다.

교코라는 인물은 여러모로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죽어도 미국에 가지 않겠다”(p.243)는 그녀의 의사표시에서 프레디는 단순한 ‘고집’으로 치부할 수 없는 “강한 의지”를 읽어내었다. 이것은 27년간이나 미국(미군)에 종속되어 폭력과 억압에 노출되었던 점령지=오키나와와의 결별을 고하는 일이기도 했다. 이때 ‘교코-아키코’로 이어지는 ‘모녀’의 핏줄은 오키나와의 대지에 뿌리내리고 삶을 이어가는 오키나와인의 강인한 생명력을 대변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미군, 미국인 남성의 애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에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본토로의 복귀는 이루어졌지만 오키나와는 여전히 미군(미국)의 점령에서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 또 한 명의 미국인 남성의 애정을 한 몸에 받았던 오키나와 여성이 있다. 『로스엔젤레스에서 온 사랑의 편지』의 스에코(末子)가 그렇다. 이 소설은 스에코와 그녀의 동창 도미코(登美子)의 각기 다른 삶의 형태를 도미코의 시선으로 그리고 있다. 두 여성의 이력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학창시절 공부에 취미가 없는데다 생긴 것도 별로였던 스에코는 미국인 도널드(ドナルド)와 결혼하여 지금은 나하(那覇)에서 그가 차려준 작은 바(bar)를 운영하며 나름 만족한 삶을 꾸려간다. 반면 도미코는 공부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똑 부러진 주체적인 여성이다. 학창시절 스에코의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던 그녀는 도쿄에서 알아주는 일류 여대를 졸업했음에도 본토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온다. 게다가 유부남과의 불륜의 사랑으로 고뇌하는 중이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스에코와 도널드의 관계이다. 둘은 결혼과 함

게 로스엔젤레스로 건너갔지만 스에코는 그곳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홀로 귀국한다. 도널드는 스에코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열심히 생업에 종사한다. 스에코가 미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언어문제였다. 간단한 영어조차 구사하지 못하여 소통에 불편을 겪게 되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정신병원 의사의 처방대로 스에코는 오키나와로 귀국한다. 도널드와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변함없는 애정을 확인한다. 문제는 “아이 러브 유” “컴백, 컴백”(p.167) 등과 같이 편지 속에 쓰여진 단편적인 말만 알아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외의 표현은 모두 동창 도미코의 통역(번역)에 의해 간접적으로 전달 받는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학창시절 자기보다 별 볼일 없던 친구가 한 남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이 불륜으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의 처지와 비교되면서 도미코의 질투가 증폭된다. 나아가 그 상대가 “상냥한 성격”(p.171)의 미국인인데다 한 여자에게만 변함없는 사랑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도미코의 질투심을 폭발시키는 매우 중요한 기폭제가 된다.

한동안 도널드로부터 연락이 끊겨 상심하고 있던 스에코에게 오랜만에 그로부터 ‘사랑의 편지’가 날아든다. 그런데 도미코는 이를 ‘이별의 편지’로 조작해 거짓말로 읽어준다. 이에 큰 상처를 받은 스에코에게 도미코는 다음과 같은 말로 다시 한 번 상처에 썩기를 박는다.

오키나와에는 버림받은 여자들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운도 좋았지, 미국에서 행복한 꿈도 꾸고.” (…중략…) “더 심하게 말해줄까? 네가 말한 거 다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중략…) 미국행도 결혼도 전부 네 망상이 아닐까 하는…….”(p.166)

실은 도미코 자신이 ‘오키나와’의 “버림받은 여자들”에 속한다. 그런 그녀로서는 자신보다 여러모로 뒤쳐진 스에코가 미국인 남성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수긍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오키나와인 여성=도미코에게는 이를 수 없는 “망상”이자 “행복한 꿈”에 불과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인 남성 도널드의 표상이다. 미국으로 멀리 떠나가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탓에 그는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의 아내 스에코와도 언어의 장벽으로 제대로 소통하기 어렵다. ‘편지’라는 간접적 매체로 소통을 시도하지만 그마저 아내의 친구 도미코의 개입으로 원활하지 못하다. 이 모든 것은 작가의 관심이 애초부터 미국인 남성 도널드라는 존재에 놓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소설의 시대상황과 맞물려 생각해 보면, 1970년대 오키나와는 미군(미국)의 힘이 약화되고 이를 대신해

본토의 힘이 막강해지던 때였다. 도미코가 본토 출신 남성과 ‘불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복귀 이후 오키나와와 본토 사이의 힘(권력)의 불균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른 한편에서는 도널드(=미국)와 스에코(=오키나와)의 ‘소통 부재의 사랑’이 지고지순한 순애보 형태로 그려진다. 이미 지나가 버린 기억이나 경험은 실제보다 미화되거나 추억되기 마련인 것처럼 소설 속 존재감은 미미하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도널드라는 인물은 흑독했던 미 점령기 가운데 나쁘지 않았던 기억과 경험을 반영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여성이 과거 미군과 교제했던 시절을 추억하고 회상하는 나카하라 리쓰코(仲原りつ子)의 소설 『이어링(イヤリング)』 속 여주인공처럼 말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설 『은색 오토바이』는 앞서 살펴본 『테부의 봉고를 타고』와 마찬가지로 주인공은 여성이지만 오키나와 청년 ‘나’의 시선으로 그려진다. ‘은색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 이모인 마사요(政代)의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나’의 10여 년 전 여름을 회상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소설 전반부에서는 ‘이모(叔母)’라는 말 대신 ‘그 사람(あのひと)’이라는 말로 호칭한다).

(이모는-인용자) 군복을 빨거나 다림질을 하던 중에 할리의 옷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리는 언제나 친절했고 성격 또한 시원시원했다.(p.147)

할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키나와를 떠나지 않고 끝내는 오키나와에서 죽어 버렸다. (...중략...) 베트남에서 일찍 돌아와 제대한 후에는 심한 알코올 중독 증세로 치료를 받으러 다녔다. 민간인 병원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종종 장난을 걸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면 엉덩이를 흔들거나 스텝을 밟으면서 다가가 아이의 귀에 술 냄새 나는 숨을 불어 넣거나 콧불을 가볍게 물거나 (...후략...) (p.144)

마사요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인 남성 할리와 결혼한다. 할리 역시 앞서의 온화한 성격의 프레디처럼 커다란 덩치에 친절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던 모양이다.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긴 하지만 유머러스하며 인간미 넘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이력도 앞서의 할리와 유사하다. 그리고 오키나와 여성과 가정을 꾸려 이곳 오키나와에 정착한 것도 꼭 닮아 있다.

문제는 그런 그가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해 버린 데에 있다. 홀로 남겨진 마사요는 남편이 남긴 외국인 저택에서 깊은 고독과 우울감에 빠져 지낸다. 마사요의 이런 증세가 남편 할리에 대한 그리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지 않다. 다만 남편 할리가 아끼던 정원의 잔디를 아직도 정성들여 가꾸고 있는 모습에서 그에 대한 마사요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할리의 소중한 정원을 이제는 조카인 ‘나’가 대신해 가꾸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의외로 깊다.

이러하면 “집념 강한 철의 폭력으로 야생 잔디”(p.153)를 다루던 할리의 “단단해 보이는 몸”(p.153)을 부각시키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마사요에게서 “어머니만큼이나 따뜻하고 좋은 향기”(p.154)를 느끼고 그런 자신의 반응에 흠칫 놀라는 ‘나’의 대조적인 모습을 묘사한다. 이때 긴장한 남성(성)으로 무장한 할리의 몸은 점령군 미군(미국)의 강력한 힘(권력)을 상기시키며, 그에 비해 아직 엄마의 품이 그리운 유약한 신체, 내지는 남성성이 결여된 미성숙한 ‘나’는 여러모로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오키나와 사회를 반영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소설의 핵심은 할리의 죽음에 이은 마사요의 죽음 안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소설의 결말은 ‘나’가 염원하던 ‘은색 오토바이’를 드디어 중고로 구입하게 되고, 그 오토바이를 재미삼아 몰고 나간 마사요가 사고를 당해 죽는 것에서 마무리된다.

할리와 마사요의 죽음은 본토로의 복귀, 달리 말해 미군의 점령체제가 완료됨으로써 오키나와와 미국 간의 관계가 (내실이야 어찌되었든 형식적으로는) 모두 종료되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이토록 시종일관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로 그려냈을까? 그 의도는 무엇이였을까? “(할리의 죽음을-인용자) 그 사람(마사요-인용자)이 슬퍼했는지 어땠는지는 나로서는 잘 모르겠다”(p.144)던 ‘나’의 독백에서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나’의 독백은 언뜻 들으면, 미군(미국)의 오랜 점령으로부터 ‘해방’되어 염원하던 본토로의 ‘복귀’를 이루었지만, 그것이 마냥 기뻐할 일인지 아닌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오키나와인=나’의 ‘독백’과도 겹쳐 들리기 때문이다. 그것은 새로운 점령자, 일본 본토인의 등장과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을 듯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군, 미국인 남성은 물론 오키나와 여성의 이미지도 복귀를 전후하여 눈에 띄게 변화했다는 점이다. 이 소설은 1976년 제6회 류큐신보(琉球新報) 단편소설상을 수상하였다. 작가 나카하라 신은 수상소감에서, “오키나와 문학 독자들이 질려버릴 만큼 문제시하고 묘사해 왔던 전후의 하나의 전형을 다시 이 작품에서 반복한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내 나름의 느낌, 시각으로 실천해 보고 싶었다”¹⁰⁾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나카하라 신을

비슷한 오키나와 출신 작가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오키나와의 전후’ 문제는 비단 미군(미국)과 오키나와의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 사이에 또 다른 변수 일본 본토(인)의 존재가 자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귀 이후의 텍스트 속에 등장하는 본토 남성과 오키나와 여성은 어떤 관계로 설정되고 있을까?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떠한 정치적 함수를 내포하고 있을까? 이어지는 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3. ‘점령’의 재편: 본토 남성의 ‘나쁜 남자’ 이미지

1972년 5월 15일, 마침내 일본 본토로의 복귀가 실현되면서 27년 동안이나 이어졌던 미군(미국)의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점령상황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일본 본토의 영향력을 새롭게 감지하는 일이기도 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복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본토 출신 남성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앞서 살펴본 『로스엔젤레스에서 온 사랑의 편지』와 『여자능직공의 노래』 안에는 이러한 본토 남성들의 면면이 포착된다.

여기서 이야기를 다시 『로스엔젤레스에서 온 사랑의 편지』로 되돌려 보자. 동창 스에코 부부의 사랑에 질투어린 훼방을 놓았던 도미코의 내면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를 둘러싼 환경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미코는 도쿄에서 20대를 보냈다. 국비시험을 치르라는 주위의 권유를 마다하고 도쿄 소재의 유명 여대에 진학한 것이다. 그녀의 대학시절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으로, 본토에서 한창 베트남전쟁 반전시위가 전개되었고, 오키나와 내에서도 ‘조국복귀운동’이 고조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혼란이 가중되던 시기였다. 오키나와에 대한 본토인의 관심은 온통 ‘반전’이라는 정치적 논리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그 외 사회적인 면에서는 편견과 차별이 극심하였다. 도미코도 대학 졸업 후 잠시 본토 회사에 취직하기도 하였으나, 오키나와 출신이라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편견, “마치 자이언트 판다라도 보는 듯한 눈으로 바라볼 때의 비참함”(p.163)을 견디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오키나와에서 새로 일자리를 찾게 된 도미코는 직장 상사 요시다(吉田)와 불륜의 사랑에 빠진다. 그는 후쿠오카(福岡) 출신으로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 둘만의 “밀회”(p.162)는 요시다가 도쿄로 전근 발령이 나면서 파국을 맞게

10) 岡本惠徳(1996), 앞의 책, p.164.

된다. 요시다는 이별이 가까워지자 아내와 헤어지겠다던 말도 도쿄로 올라던 말도 더 이상 꺼내지 않게 되었다.

식어버린 두 남녀는 알몸이 되어, 그래도 사무적으로 마지막 관계를 가졌다. 도미코는 이별이 불러일으키는 정열을 원했다. 영혼을 고양시키기를 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시다가 자신을 더욱 사랑해주어야 했다. 미련을 가져줘야 했다. 적어도 그런 척이라도 해야 했다. (...중략...) 요시다가 애매하게 처신하지 않고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면, 도미코가 거꾸로 가지 말라고 먼저 손을 내밀었을 것이다.(p.164)

헤어지기 전 도미코와 요시다가 마지막으로 육체적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다. 요시다에게 아직 미련이 남아 있지만 붙잡지 못하고 그가 대신 잡아 주길 기대하는 도미코의 간절한 마음이 엿보인다. 이 부분은 일견 남녀의 혼한 이별장면, 혹은 불륜관계의 전형적인 결말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런데 당시 도미코를 둘러싼 환경을 상기할 때, 그렇게 단순한 남녀의 이별장면으로 치부할 것은 아닌 듯 보인다.

앞서 살펴본 스에코와 도널드의 관계처럼, 도미코와 요시다의 관계에서도 당시 오키나와와 본토 사이의 힘(권력)의 역학이 꿰뚫어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스에코와 도널드가 정식 부부사이었던 것에 비해 이들의 관계는 ‘불륜’으로 설정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요시다라는 인물은 주체적이지 못하고 우유부단하며, 유부남이면서 다른 여성의 육체를 탐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진다. 미군, 미국인 남성의 이미지가 폭력적이고 강인한 이미지를 벗어나 부드럽고 때로는 연약하기까지 한 모습으로 탈바꿈한 것과 비교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보아온 프레디, 할리, 도널드 등의 미군, 미국인 남성들은 모두 오키나와 여성과 결혼을 하였으며, 배신하거나 바람을 피우는 일 없이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 본토 출신 요시다는 책임감은커녕 본토에 있는 아내와 곧 이혼할 테니 기다리라는 등 도쿄로 따라오라는 등, 헛된 공약만 남발하며 전형적인 바람둥이의 모습을 보인다. 그는 육체적 유희와 쾌락만 추구하다 결국은 처자식이 있는 본토로 홀연히 떠나버리고 만다.

이처럼 본토 출신 남성을 ‘나쁜 남자’로 묘사하는 또 다른 소설로 『여자능직공의 노래』를 들 수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본토 출신 남성은 요시다라는 인물보다 여러 면에서 한수 위다.

소설의 무대는 오키나와 북부의 한 작은 마을이다. 시대배경은 1980년을 전후한 시기이며, 대략의 줄거리는 할머니와 어머니 미요(美葉), 딸 유키(由起)로

이어지는 모녀 3대의 파란만장한 삶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유키는 나하 시내의 한 회사에 근무하는 커리어우먼이다. 사내연애를 하지만 불행히도 상대는 앞서의 도미코와 마찬가지로 유부남이었다. 유키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두 사람은 낙태하기로 결정하고 관계를 정리한다.

얼마 안 있어 유키는 후쿠오카 출신의 본토 남성 니시무라 다카유키(西村隆之)와 좋아지내게 된다. 그는 40대인 유키보다 연하인데다 회사 동료 료코(良子)의 남자친구였다. 게다가 자위대 출신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지만 육체적 관계에만 집착을 보였던 지금까지의 남자들과는 판연히 다른 모습에 매력을 느껴 동거에 들어간다. 그는 유키의 손톱, 발톱까지 깎아줄 정도로 다정하고 자상한 남자였다.

그런데 작가는 이미 소설 전반부에 다카유키의 행방을 쫓는 경찰이 유키의 집을 들이닥치는 장면을 배치함으로써 그의 정체가 심상치 않으리라는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유키가 ‘불륜’에 이어 다시 ‘실연’이라는 상처를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다. 이때 그 상대 남성이 본토 출신이라는 점은, 유키의 연이은 아픔이 한 개인의 탓이 아닌, 오키나와 출신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뒷받침 한다. 즉 본토 출신 다카유키는, ‘할머니-어머니-유키’로 이어지는 ‘모녀 3대’의 ‘비극적 운명’을 완성시켜 주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유키의 할머니는 증조할아버지에 의해 열 살 무렵 유곽으로 팔려갔던 아픔을 갖고 있다. 그곳에서 ‘주리(尾類=娼妓·芸妓)’로 10여 년을 살다가 부잣집과 사돈을 맺게 된 사촌 여동생 다네(タネ)가 기적에서 빼내어준 덕에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어머니 미요의 삶은 더욱 파란만장하다. 그녀의 비극은 전쟁에 소집되었던 남편 유키오(幸雄)가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고, 그의 동생 유키히로(幸広)와 결혼하면서 시작되었다. 대를 잇고자 하는 친척들의 압력 때문이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전사했다던 남편 유키오가 살아 돌아왔다. 전사통보는 오보였던 것이다. 이미 유키히로와의 사이에서 유키가 태어났으니 같이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미요는 유키를 데리고 친정으로, 유키히로는 본토로, 유키오는 다른 여성과 재혼하여 각자의 길을 걷게 된다.

미요의 또 다른 비극은, 오키나와 전투 당시 일본 병사에게 강간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 비참했던 것은 그것이 딸 유키가 지켜보는 앞이었다는 점이다.

유키는 어렸지만 당시의 일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 역시 할머니와 어머니로 이어지는 “가혹한” “운명”¹¹⁾을 빚겨가지 못할 것이라

11) 沖繩文学全集編集委員会(1990) 『沖繩文学全集 第9巻』, 国書刊行会, p.195.(이하, 페이지 참조)

고 예감한다. 유키의 예감은 적중하여 소설이 결말에 이르자 다카유키가 희대의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다음은 이 지역 석간신문 「화제를 쫓아」라는 코너에 게재된 “결혼 사기남, 순수한 오키나와 여성에게 경의를 표하다”라는 타이틀의 기사전문이다.

나하시 등지에서 노처녀를 연달아 속여 수사망에 올랐던 남자가 어제 여자를 만나기 위해 외출한 나고(名護)시에서 잡혔다. 남자의 이름은 니시무라 다카시(西村隆), 다른 이름은 오무라 히로유키(大村博之), 요시무라 다카오(吉村隆男), 니시무라 다카유키(西村隆之), 나이는 32세, 후쿠오카 출신이다. 이 남자는 주로 혼기를 넘긴 여성 가운데 목돈을 모아 놓았을 법한 이들에게 접근해 결혼을 미끼로 돈을 갈취해왔다. 현재 남자는 다섯 명의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한다. 여자들이 전혀 눈치 채지 못하도록 일주일 간격으로 로테이션 되도록 치밀하게 전략을 짜 만나왔다고 한다. 자위대원이라고 속이고 회사원인 체했던 이 남자는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오키나와 여자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솔직하고 의심할 줄을 모른다. 함께 있으면 나도 반은 미친 것처럼 이상해진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참고로 그가 갈취한 돈은 오키나와 현에서는 한 사람 평균 30만 엔. 다른 현에서는 100만 엔이라고 한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돈을 갈취한 사기남도 오키나와 여성의 순수함에 경의(?)를 표한 것이다. 그건 그렇다하더라도 사람의 순수함이나 약점을 이용하다니 정말 나쁜 남자다.(pp.206~207)

소설의 대반전을 이루는 위의 기사는, 당시 본토인(남성)에 대한 오키나와인의 인식, 거꾸로 말하면 오키나와인의 본토인(남성)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준다. 요컨대 ‘순진한 오키나와 여성’을 갈취하는 ‘사기꾼 본토 남성’이라는 이항대립 구도, 즉 ‘나쁜 남자 VS 순진한 여자’라는 명백한 선악구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본토(남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출하는 장면은 텍스트 곳곳에서 포착할 수 있는데, 일본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미요는 물론이고, 평범한 여인네들의 입을 통해 자연스럽게 회자된다.

“아들 회사가 야마토(大和)에게 당해서 망했다고 해서 말이야. 머느리하고 손자 셋을 맡아 달라고 찾아 왔더라고.”(p.203)

“야마토 사람은 말을 잘하니까 말이야. 오키나와 사람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속아 빼앗긴다니까.”

(…중략…)

“두고 봐, 나는 속지 않을 거야.”

활기찬 시즈카 씨가 승리의 포즈를 지어보이자 모두들 크게 웃었다.(p.203)

“전에 신문 구석에 나온 기사 봤어? 여자를 속인……”

“아아, 세 줄의 짧은 글이었는데……아마 야마토에 부인도 있다던데 독신이라고 속이고 말이야.”

(…중략…)

“가장 손해는 말이야 여자의 몸이 말라버리는 거야. 쓰지 않으면 샘이 솟지 않는 것처럼 말이야.”

“샘이 솟는다고? 아직 눈은 적실 수 있다고. 아하하하”

할머니들은 외설스러운 말을 호탕하게 웃으며 주고받았다. (p.204)

마을 아낙들이 삼삼오오 모여 ‘야마토 사람’에 대한 불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장면이다. 외설적인 농담을 섞어 가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하고 있는 데에서 본토인에 대한 불신감이 오키나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전쟁(오키나와 전투)를 직접 경험한 기성세대일수록 그 정도가 컸음을 가늠케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근·현대 오키나와의 역사는 폭력과 수난으로 점철되었다. 메이지기 이래 온갖 차별을 감수하며 일본(인)으로의 동화를 위해 애써왔지만 결정적일 때에 오키나와는 번번이 본토로부터 버림받아 왔다. 무엇보다 아시아·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행한 수많은 악행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전후에는 전시 본토인 이상으로 전투에 참여한 오키나와를 미군정 하에 내버려 둔 채 홀로 독립을 감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오키나와인들은 ‘패전’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그 위에 일본이라는 ‘국가’마저 상실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오키나와인이 느꼈을 분노와 배신감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분노와 배신감은 싫든 좋든 오키나와인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일본인이 아닌 오키나와인이라는 사실을 되묻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¹²⁾

12) 그 대표적 인물이 오타 마사히데(大田昌秀)이다. 오타는 당시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그만큼 충실하게 교육 받고 전장에서 군과 함께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스파이라는 소릴 들었을 때 받았던 쇼크는 상상 이상이였다. (중략) 패전 과정에서 기성의 가치관이 붕괴되어 사라지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다. 우군 병사들에게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의심을 받았을 때 나는 싫든 좋든 오키나와인이라는 나 자신의 출신을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말로 표현한 바 있다. 大田昌秀(1994) 『見える昭和と「見えない昭和」』, 那覇

오키나와 전후 작가 1세대라 할 수 있는 오시로 다쓰히로, 히가시 미네오, 가요 야스오(嘉陽安男), 후나코시 기쇼(船越義彰) 등이 문학 속에서 오키나와(인) 아이덴티티 문제를 표출하기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하지만 일본 본토 ‘복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던 시기와 맞물린다.¹³⁾ 물론 그 양상은 전전-전시의 그것과는 분명하게 구분된다.¹⁴⁾

오카모토 게이토쿠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오키나와의 ‘시정권반환(施政權返還)’문제가 본토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관심을 끌었던 1960년대 말에서 1972년 복귀까지의 시기는 전후 오키나와(인)에게 있어 사상사적으로나 문학사적으로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문학영역에서는 『신오키나와문학(新沖繩文學)』을 중심으로 “오키나와는 문학의 불모지인가”¹⁵⁾라는 테마기획을 내걸고 자신들의 방향성을 모색해 가는 가운데, 일본 본토 문학 흐름과 변별되는 오키나와(인) 특유의 성찰적 글쓰기 영역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복귀’ ‘반(反)복귀’를 둘러싼 오키나와인들의 치열한 사상적 고민 속에서 마침내 일본 본토로의 ‘복귀’가 완료되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의 소설들을 주로 다루었다. 이 무렵 오키나와 사회는 일본 정부 주도 하에 큰 변모를 거듭하였다. ‘오키나와 진흥개발계획(1972~1981)’을 앞세워 관료 시스템, 정당 등의 정치적인 면에서부터 경제,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

出版社, pp.196~197.

- 13) 이들이 활약하는 1960년대 중후반 무렵은, 제9차 교연집회(教研集會)에서 새롭게 ‘국민교육분과’를 설치하고(1963), ‘국민교육운동’을 추진하는 등, 본토화 교육이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이를테면, 본토식 인사, 답례방식과 같은 예의범절을 교육하는 것은 물론 ‘히노마루(日の丸)’ ‘기미가요(君が代)’를 장려하고, 일상적인 용어의 면에서도 ‘일본’이 아닌 ‘조국’, ‘오키나와인’이 아닌 ‘현민(縣民)’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일상생활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일본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도록 강제하였다(小熊英二(1999) 『<日本人>の境界 -沖繩・アイヌ・台湾・朝鮮 植民地支配から復歸運動まで』, 新曜社, p.574). 이처럼 본토로의 ‘복귀’를 지향하고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과 ‘오키나와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역설적이지만 공존하였던 상황을, 전후 오키나와 문단은 정확하게 포착하여 그려내고 있다. 오시로의 『각테일 파티』에 그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 14) 오타 마사히데는 전후 복귀운동도 일종의 ‘일본화’ 운동임은 분명하나, 더 이상 전전(戰前) 류의 단순한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추구한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오타 자신은 “인간으로서의” 아이덴티티(존재증명)의 추구로 바뀌었으며, 그러한 변화는 이민족=미군의 지배 하에서 20여 년 간이나 인권상실을 경험했던 전후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大田昌秀(1996) 『拒絶する沖繩 -日本復歸と沖繩の心』, 近代文芸社, p.8).
- 15) 1966년 4월, 『신오키나와문학』 창간을 기념하여 기획한 좌담회 테마로, 주요 멤버로는 오키나와 전후 문학 제 1세대에 해당하는 오시로 다쓰히로 등의 주도로 문단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고자 하였다. 창간 이듬해에 아쿠타가와 상을 배출하면서 활기를 띠게 된다(岡本恵徳・高橋敏夫(2003) 『沖繩文學選』, 勉誠出版, p.130 참조). 이들의 작품성향은 미군(미국)의 폭력적이고 지배적인 점령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역설적 자기인식을 포함한 오키나와인의 성찰적 글쓰기가 주를 이룬다.

쳐 본토화를 추진해 갔으며, 사회구조적인 면에서도 도로, 항만, 공항, 학교 등 여러 시설이 현대식으로 정비되고, 여전히 일본 내 최저이기는 하나 소득이나 생활수준을 복귀 이전보다 현저히 끌어올렸다.¹⁶⁾ 그 과정에서 토지 강제사용, 미군범죄, 소음문제 등 미군기지로 인한 각종 피해가 야기되었으며, 본토와의 경제적 불균형(본토 의존구조) 문제도 피할 수 없었지만, 그 이면에는 일본 정부가 막강한 자본력을 동원하여 오키나와 주민들로 하여금 기지를 반대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던 사정도 자리한다. 어찌되었든 오키나와의 입장에서는 미군(미국)에서 일본 본토로 힘(권력)이 이동하면서 ‘점령’의 주체나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 상황은 지속되는 요컨대 ‘점령의 재편’에 불과한 불편한 상황과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본토로의 복귀는 완료되었지만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던 것도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소설 『로스엔젤레스에서 온 사랑의 편지』와 『여자능직공의 노래』 속 본토 남성의 ‘나쁜 남자’ 이미지는 바로 이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 사이의 힘(권력)의 불균형을 발 빠르게 인지하고, 본토 복귀 이후에도 오키나와인의 삶이 그리 평탄치 않으리라는 ‘불길한 예측’ 속에서 탄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전국토의 0.6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오키나와 땅에 미군기지의 75퍼센트가 점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 ‘불길한 예측’이 빚나가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4. 결론

이 글의 목적은 오랜 미 점령기를 거쳐 일본 복귀를 이룬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의 오키나와 소설들에 나타난 젠더 표상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일본으로 복귀한 이후 1970년대 후반이 되면 미군과 오키나와 여성의 관계에 변화가 감지된다. 가장 큰 변화는 무력한 오키나와 남성의 딸이나 아내, 즉 미군에 의한 강간의 피해자이거나 창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창부가 아닌 번듯한 직업을 갖으며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홀로서기한 주체적인 인물로 그려진다는 점이다. 이들은 연애든 결혼이든 주체적인 삶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부모세대와도 변별된다.

16) 정영신(2008) 「오키나와의 기지화·군사화에 관한 연구 -기지의 건설·확장과 반환의 역사적 과정을 중심으로」(정근식·전경수·이지원 편저(2008) 『기지의 섬, 오키나와』, 논형, p.201).

무엇보다 오키나와 여성들의 ‘내면’이 묘사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여성 등장인물의 경우 이름조차 없으며 대개 아버지나 남편, 소년 등 남성인물들에 의해 대변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루어온 텍스트 속 오키나와 여성들은 더 이상 미군에게 성을 파는 창부가 아니며, 미군의 현지처로 살다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다. 미군, 미국인 남성과 대등한 연인관계이거나 부부관계로 발전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때 미군, 미국인 남성은 오키나와 여성에게 무한한 애정과 믿음을 주는 존재로 묘사된다. 더 나아가 이제까지의 폭력적이고 강인한 모습의 미군과 달리 눈물을 흘리거나 심약하여 오키나와 여성에게 거꾸로 위무(위로) 받는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모두 기존의 미군, 미국인 남성의 이미지를 크게 반전시키는 캐릭터들이다.

한편 복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본토 출신 남성들이 작품 속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흥미로운 것은 본토 출신 남자가 묘사되는 방식이다. 불륜상대이거나 사기성이 농후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며, 본토 출신 남성에게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전쟁(오키나와전투)를 직접 경험한 기성세대 일수록 강하게 드러난다.

그렇다고 본토 출신 남자와 오키나와 여성이 반드시 ‘불륜’이나 ‘동거’ ‘사기 결혼’ 등 일탈된 남녀구도로만 그렸던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정식 부부관계로 묘사되기도 한다. 예컨대 나칸다카리 하쓰(仲村渠ハツ)의 『약속(約束)』(『琉球新報』, 1981)이라는 소설에서는 본토 출신 남성과 오키나와 여성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 이 안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식사습관 등)로 인한 충돌과 갈등을 그리고 있다. 거꾸로 오키나와 남성과 결혼한 본토 출신 여성이 오키나와의 생활풍습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혼하고 본토로 떠나버리는 내용의 소설도 있다. 요시자와 요키(吉沢庸希)의 『돌아갈 채비(婦)支度』(『琉球新報』, 1981)가 그것이다. 이 작품의 경우 오시로 다쓰히로의 『니라이카나이의 거리(ニライカナイの街)』(『文藝春秋』 10月號, 1969)와 좋은 대비를 이룬다. 여기에 등장하는 미국인 병사 폴(ポール)은 오키나와 여성 도키코(時子)와 결혼하여 그녀의 가족과 함께 오키나와 전통문화 ‘투우(鬪牛)’를 즐기는 등 오키나와에 깊숙이 동화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베트남전쟁에 참전 중이던 그가 그리워한 땅은 고국인 미국이 아닌 오키나와였다. 복귀 이후 미군과 오키나와 여성 커플의 묘사가 친밀한 관계 내지는 긍정적 관계로 변화한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본토 남성과 오키나와 여성 커플이다. 이들은 정식으로 가정을 꾸린 부부라 하더라도 문화적 차이와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관계에 놓여 있다. 또한 불륜관계이거나 정식 부부관계이거나 상관없이 오키나와 여성들의 ‘내면’은 하나 같이 불행하며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이 어둡고 우울하며 질투심이 강하고 심한 경우는 정신병을 앓기도 한다.

이상의 젠더 표상의 반전은 무엇보다 미국(미군)과 일본 본토, 그리고 오키나와 사이의 정치적 함수를 예리하게 간파한 전후 오키나와 작가들의 글쓰기 전략에 의한 것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 中原晋(1977) 『銀のオートバイ』, 『琉球新報』(沖繩文学全集編集委員会(1990), 『沖繩文学全集 第8卷』, 国書刊行会, pp.142~158)
- 下川博(1978) 『ロスからの愛の手紙』, 『琉球新報』(沖繩文学全集編集委員会(1990), 『沖繩文学全集 第8卷』, 国書刊行会, pp.159~172)
- 比嘉秀喜(1980) 『デブのボンゴに揺られて』, 『琉球新報』(沖繩文学全集編集委員会(1990), 『沖繩文学全集 第8卷』, 国書刊行会, pp.234~248)
- 喜舎場直子(1985) 『女綾織唄』, 『新沖繩文学』(『沖繩文学全集 第9卷』, 国書刊行会, pp.178~207)
- 岡本恵徳(1996) 『現代文学にみる沖繩の自画像』, 高文研, p.164.
- 大田昌秀(1994) 『見える昭和と「見えない昭和」』那覇出版社, pp.196~197.
- _____ (1996) 『拒絶する沖繩 -日本復歸と沖繩の心』, 近代文芸社, p.8.
- 小熊英二(1999) 『<日本人>の境界 -沖繩・アイヌ・台湾・朝鮮 植民地支配から復歸運動まで』, 新曜社, p.574.
- 岡本恵徳・高橋敏夫(2003) 『沖繩文學選』, 勉誠出版. p.130.
- 아라사키 모리테루/정영신·미야우치 아키오 옮김(2008) 『오키나와 현대사』, 논형, p.63.
- 정영신(2008) 「오키나와의 기지화·군사화에 관한 연구 -기지의 건설·확장과 반환의 역사적 과정을 중심으로」(정근식·전경수·이지원 편저(2008), 『기지의 섬, 오키나와』, 논형, p.201)
- 손지연(2013) 「젠더 프레임을 통해 본 미 점령기 오키나와 소설 -오시로 다쓰히로와 히가시 미네오를 중심으로」, 『語文論集』 55호, 중앙어문학회, pp.295~319.

要 旨

The purpose of this writing is to study the change of Gender Symbol, that appears in the novels of Okinawa, from late 1970 to mid 1980 which was the time of return after the long occupation of America. After the return, the change could be sensed from the relationship of US soldiers and Okinawan women in late 1970.

The biggest change was that, instead of being helpless daughters or wives of Okinawan men, in other words, being free from the image of rape victims or prostitutes of American soldiers, they were illustrated as independent figures with decent works whether in economically or mentally. Whether it be dates or marriages, their emphasis on independent lives were distinguished from their older generations with traditional thoughts.

It also worths to observe the appearance of men from mainland who were not seen before the return. The images of men from mainland were described as immoral relations or frauds, and for the ones who experienced the war in Okinawa, the negative perception of men from mainland was even stronger.

It is not so excessive to emphasize that the reversal of gender symbol was by the writing tactics of Okinawan authors from the post-war, who saw through the political functions between the American military, mainland Japan, and Okinawa.

キーワード : Post-war Okinawan Novel, Gender Symbol,
American Occupation, Return to Japan, American Soldier,
American Men, Mainland Japanese Men

투 고 : 2013. 8. 31
1차 심사 : 2013. 9. 14
2차 심사 : 2013. 10. 5